



## 인협, 도쿄국제도서전서 165건 180만 달러 수출상담 인쇄물 수출 지원 · 2016 세계인쇄회의 개최 적극 홍보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조정석)는 지난 7월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 일본 도쿄 빅사이트전시장에서 열린 2015 도쿄국제도서전(TIBF)에 한국인쇄관을 설치하고 인쇄물 수출 지원 및 2016년 세계인쇄회의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했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올해 22회를 맞은 2015 도쿄국제도서전은 일본 최대 규모의 출판관련전시회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홍콩, 대만, 이란, 터키,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25개국 1526개사가 참가해 부스를 운영했으며, 총 관람객 수는 6만7570명을 기록했다. 다양한 세미나에 참석한 인원도 4일 동안 1만734명에 달했다.

도쿄국제도서전에는 출판, 잡지 및 저널, 신문, 지도 및 여행 가이드 등 모든 종류의 출판물을 전시하는 일반관(General area)을 비롯해 자연과학도서박람회(Natural Sciences Book Fair), 인문 사회과학도서박람회(Humanities & Social Sciences Book Fair), 아동도서전(Children's Book Fair) 등으로 세분화돼 진행됐다.

또한 디지털 출판 및 e-book 전시회인 '제19회 e-book 엑스

포 도쿄'를 비롯해 캐릭터&브랜드 비즈니스 전시회인 '제5회 라이선싱 재팬', 비디오, 게임, 애니메이션 전시회인 '제3회 프로덕션 컴패니즈 엑스포', 콘텐츠 개발, 운영, 마케팅, 교류 관련 전시회인 '제3회 콘텐츠솔루션 엑스포', 그래픽, 웹 페이지, 팟캐스트, 비디오 콘텐츠 마케팅 전시회인 '제1회 콘텐츠마케팅 엑스포', 엔터테인먼트, 상호교류 테크놀로지를 위한 최신 기술 전시회인 '제1회 어드밴스드 콘텐츠테크놀로지 엑스포', 다양한 장르의 크리에이터 전시회인 '제4회 크리에이터스 엑스포' 등 7개 전시회가 동시 개최됐다.

한편 2016 도쿄국제도서전은 9월로 옮겨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열리며, 6월에는 라이선싱 및 프로덕션 컴패니즈 엑스포가 열린다.



1. 한국인쇄문화관에 직접참가한 금강인쇄(주), 아시아프린팅(주), 청아문화사 2. 한국인쇄관에는 직지 리플릿, 세계인쇄회의 리플릿 등을 배포했으며 직지사연을 통한 홍보를 진행했다.  
3. 2015 도쿄국제도서전(TIBF)이 열린 일본 도쿄 빅사이트전시장 4. 2015 도쿄국제도서전(TIBF) 개막식 테이프 커팅 전경

### 한국인쇄문화관 설치해 수출지원·직지 홍보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조정석)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30㎡ 규모로 'Printing Korea' 라는 이름의 한국인쇄관을 설치하고 직지심체유절 금속활판(복제) 등을 전시함으로써 한국 인쇄 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부스에서는 한국 인쇄문화의 역사와 현황, 주요 수출업체의 명단이 포함된 영문 홍보물 등을 배포했으며, 한국 인쇄문화 홍보용 영문 리플릿을 곳곳에 배치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쇄문화를 홍보하고, 인쇄수출 활동을 적극 지원했다. 특히 국내 인쇄사가 현재 및 잠재 구매자와 직접 만나 상담할 수 있도록 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인쇄물 수출 증대에도 큰 역할을 했다. 이와 함께

2016년 열리는 2016 세계인쇄회의 개최에 대한 홍보도 함께 진행했다.

### 3개사 직접 참가해 180만 달러치 상담

한국인쇄문화관은 금강인쇄(주), 아시아프린팅(주), 청아문화사 등 3개사가 직접 참가했다.

Printing Korea의 타이틀로 세련되면서도 깔끔한 이미지로 구성된 한국인쇄관은 각 참가사마다 독립적인 공간을 마련해 자유로운 상담을 보장했으며 우수 인쇄물 및 위탁 전시 업체 브로슈어 전시 및 수출 상담을 지원했다. 전시회 기간 동안 165여 건의 상담, 180만 달러에 달하는 상담실적을 올렸다.



금강인쇄(주)



금강인쇄(주)(대표이사 송창국)는 정기간행물, 아동도서, 캘린더 등을 비롯한 상업인쇄물 전문 업체다. 설립 이

후 고객 무한 감동 서비스와 최첨단 인쇄 시설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CIP3, 무알콜 인쇄, 습수정화살균 시스템 등을 갖추고 친환경 인쇄를 추구한다. 2013년 프랑크푸르트국제도서전에 상담트레이닝으로 참가한 후 꾸준히 해외전시회에 참가하고 있다. 현재 일본을 비롯해 미국, 유럽 등으로 인쇄물을 수출하고 있는 중견인쇄사다. 전시 기간 동안 50개 업체 60만 달러에 달하는 수출상담을 진행했다.

아시아프린팅(주)



아시아프린팅(주)(대표이사 이국홍)는 어떤 분야의 인쇄물이라도 고품질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있는 인쇄사다. 품질관리를 위해 전 직원들은 인쇄물 수출에 필요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있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생산 과정을 감독해 인쇄물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 주요 수출제품은 아동용 책자, 아트북, 카탈로그 및 브로슈어, 잡지, 캘린더, 쇼팸백, 패키지 등이다. 매년 뉴욕도서전, 동경도서전, 프랑크푸르트도서전 등 해외 주요 국제도서전에 참가해 자사 홍보 및 신규고객 발굴에 힘쓰고 있다. 전시 기간 동안 60개 업체와 70만 달러에 달하는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청아문화사



청아문화사(대표 김남수)는 고급 컬러인쇄를 비롯해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전, 성경 등의 박엽지 인쇄기술을



주도하고 있는 30년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중견 인쇄사다. 1985년 설립, 최고의 인쇄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연구에 지속투자하고 있다. ISO 9001 인증 획득으로 인쇄품질과 서비스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박엽지 인쇄에서 가장 어려운 온도도 조절 문제를 해결하고 일본, 미국, 스위스, 이탈리아 등에 수출을 하고 있다. 전시 기간 동안 55개 업체와 50만 달러에 달하는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출협,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 기념 특별전 진행키도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고영수)는 한국관을 설치하고, 다락원과 한국문학번역원의 전시도서 외 경세원, 미래문화사, 신일북스, 주니어김영사, 청림출판, 현암사 등 13개사의 위탁도서를 포함해 총 300여 종의 도서를 전시했다. 역대 볼로냐 라가치상 입상도서 및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로 선정된 40여 작가의 대표도서를 전시한 '코리안 하이라이트 인 볼로냐(Korean Highlights in Bologna)' 전,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기념해 '한국의 지(知)를 읽다'를 주제로 한 '한일 수교 50주년 기념 특별전', 노마 히데키 씨를 강사로 초청한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 기념 강연'을 진행했다. 이밖에 한국문학번역원이 주최하는 ▲한일 작가 대담(강영숙 소설가, 나가지마 료코), ▲작가와 번역가의 만남(김언수 소설가, 오순영 번역가), ▲한국문학 강연(왜 소설을 쓰는가, 한국소설 읽기 등) 등도 열렸다.

한편 개막식 테이프커팅 이후 아키시노 왕자 부부가 한국관 부스를 깜짝 방문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